■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11-248.
http://doi.org/10.17948/kcs.2019..83.211

【특집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1)】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심경호(沈慶昊)*

목 차

1. 머리말
2. 교토대학『금석집첩』과 고려대학교『금석록』총목
3.『금석집첩』수록 묘비문의 문체적 특징
4.『금석집첩』수록 석비(비묘비) 탁본
5.『금석집첩』수록의 묘도문자 탁본
6. 맺는말

국문초록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는 일반귀중서로『금석집첩(金石集帖)』정편과 속집의 대형 219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둘을 '금석집첩(金石集帖)'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조선후기 영조 때 정치가 청사(淸沙) 김재로(金在魯, 1682-1759)와 후인(後人)이 엮은 비석 탁본 모음이다. 일부 책자의 등에는 '흠흠헌(欽欽軒)'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이것은 김재로의 헌호(軒號)로 추정된다. 전체는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고, 권차(卷次)는 천자문 순서이다. 219책 가운데 3책은 복본(複本)이다. 교토대학에서 어느 때인가 연필로 외표지에 번호를 매긴 것에 의하면 그 시점에서는 230책이 완질이었던 듯하다.

교토대학 소장『금석집첩』과『속집첩』에 대해서는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상세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의 정리번호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금석집첩』은 묘비(墓碑)의 류와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의 류를 나누어 수록하고, 묘비의 류는 망자(亡者)의 관직에 따라 정리하되, 김재로 집안의 비문들을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며, 음관(蔭官)・부인(婦人)・호남인(湖南人)・영남인(嶺南人)・관서북관인(關西北關人)・여항인(閭巷人) 등의 항목을 설정해 두었다.

한편, 김재로의 후인이 『금석집첩』의 탁본 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록한 필사본 『금석록(金石錄)』이 고려대학교 육당문고(六堂文庫)에 이 있다. 이 총목은 '천조(天朝)'부터 '석사(釋寺)'까지 34항으로 구성했으며, 2,405점을 본편(本編) 206책, 속편 20책에 나누어 수록했다. 단, 중복이 있어, 실제로는 2,265점의 탁본 목록이 확인된다.

『금석집첩』에 대해서 가쓰라기 스에하루(葛城末治)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규장각에 『금석첩(金石帖)』 39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 규장각에는 1책('得'자 책)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 형태의 금석첩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육당문고(六堂文庫)에 28책과 개인소장의 5책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육당문고에서는 교토대학에 없는 '邇'자 책, '過'자 책, '忘'자 책, '維'자 책, '習'자 책의 일부가 확인된다. 그리고 '禍'자 책의 예처럼 육당문고에는 교토대학 『금석집첩』과 중복되는 것도 있다. 교토대학의 『금석집첩』에 복본이 3책이 있고, 고려대학교에 별도로 28책의 낙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재로 등이 『금석집첩』을 제작할 때 일부는 2질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주제어: 『금석집첩(金石集帖)』, 김재로(金在魯), 『금석록(金石錄)』, 육당문고(六堂文庫), 탁본(拓本), 묘비(墓碑),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

1. 머리말

한국에는 근세 이전의 석비(石碑)와 묘비(墓碑)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고, 갖가지 문헌에 비문의 저본(底本)이나 필사본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석비는 기공비(紀功碑)・신사비(神祠碑)・전몰비(戰歿碑)・기념비(紀念碑) 등등을 통칭하고, 묘비는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새긴 모든 종류의 비를 통칭한다. 한반도에서는 고대로부터 국가, 사대부 계급, 승려가 권력의 현시, 구역의 점유 등의 목적에서 입비(立碑)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는 일반귀중서로 『금석집첩(金石集帖)』 정편과 속집의 대형 219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둘을 '금석집첩(金石集帖)'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조선후기 영조 때 정치가 청사(淸沙) 김재로(金在魯, 1682-1759)와 그 후손이 편한 것의 일부로, 근세 이전 한국 금석문 탁본 가운데 현존하는 최대

컬렉션이다. 책자의 등에는 '흠흠헌(欽欽軒)'이라고 묵서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재로의 헌호(軒號)로 추정된다. 전체는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고, 권차(卷次)는 천자문 순서이다.

『금석집첩』의 탁본은 묘비류와 일반 석비류[비묘비(非墓碑)]로 나누어진다. 현판(懸板)의 탁본도 소수이지만 포함되어 있다.

묘비류에는 능비(陵碑), 능표(陵表), 원표(園表), 추부표(追祔表),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묘표(墓表), 묘갈(墓碣) 등이 있다.

일반 석비류에는 궁전비(宮殿碑), 구리비(舊里碑), 기적비(紀蹟碑), 기사비(記事碑), 사적비(事蹟碑), 사실비(事實碑), 유허비(遺墟碑), 하마비(下馬碑), 주필비(駐蹕碑), 어필별유비(御筆別諭碑), 어제비(御製碑), 어제현판(御製懸板), 윤음현판(綸音懸板), 어제제문(御製祭文), 지주비(砥柱碑), 충렬비(忠烈碑), 서원비(書院碑), 사비(祠碑), 정려비(旌閭碑), 순절비(殉節碑), 순의비(殉義碑), 문비(門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묘비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비주(碑主) 즉 묘주(墓主)는 16세기 말 이후 18세기 초의 사대부가 많으나, 그 앞 시기의 비주의 것이라도 해당 시기에 수립되거나 재건된 예가 대부분이다. 묘지(墓誌)는 그리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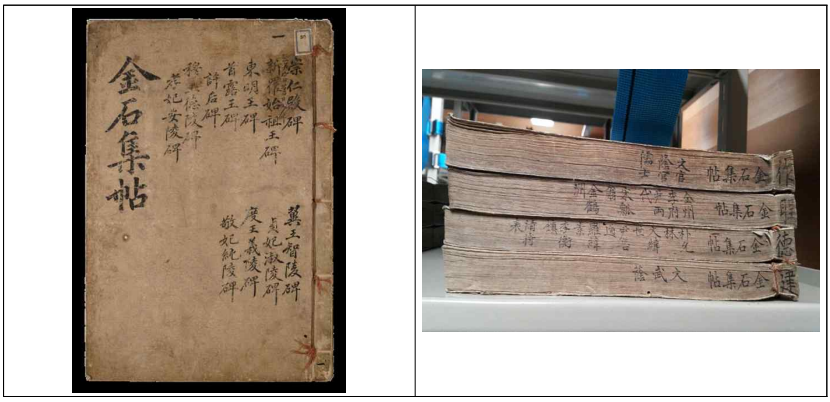
『금석집첩』에 대해서 가쓰라기 스에하루(葛城末治)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금석첩(金石帖)』 39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1] 교토대학의 『금석집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일 형태의 금석첩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육당문고(六堂文庫)에 28책, 개인소장의 5책이 보고되어 있다. 만일 이 숫자를 그대로 따른다면 『금석집첩』의 첩본은 교토대학 이외에 72책이 현존하는 셈이다.[2]

그리고 이 『금석집첩』의 수록 탁본을 조사할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집인 『금석록』 필사본 1책이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있다. 이 목록은 김재로가 탁본을 수집할 때 일단 작성한 것에다가, 후인이 제책의 분류를 다시하거나 탁본을 추가 수록하기 위해 가필한 것인 듯하다. 이 『금석록』의 총목은 '천조(天朝)'부터 '석사(釋寺)'까지 34항으로 구성했으며, 2,405점을 본편(本編) 206책, 속편 20책에 나누어 수록했다. 단, 탁본에는 중복이 있다. 실제로는 2,265점의

1)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1935;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1冊, 東洋文庫, 1944.
2) 朴哲相, 「朝鮮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位相」, 『大東漢文學』 第27集, 大東漢文學會, 2007.

탁본을 저록(著錄)하고 있다.[3]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과 『속집첩』의 목록에 대해서는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4] 다만, 현재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의 정리번호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간혹 있으므로, 본고에서 바로잡았다.



〈그림1〉 京都大學付屬圖書館 一般貴重書 『金石集帖』 및 『金石續集帖』 大型 총 219책(『金石集帖』으로 통칭).

2. 교토대학 『금석집첩』과 고려대학교 『금석록』 총목

『금석집첩』은 김재로(金在魯)에 의하여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금석집첩』의 탁본에 그의 '선세(先世)'와 '방친(傍親)'의 비지(碑誌)를 별책으로 설정한 사실, 그 탁본 수집에 앞서 작성한 목록 『금석록』의 편자가 김재로로 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잘 알 수 있다.

김재로는 본관이 청풍으로, 김구(金構, 1649-1704)의 차남이다. 김구의 묘는 서울 송파구(松坡區) 방이동(芳荑洞) 오륜공원 몽촌토성(夢村土城) 안에 있다. 1743년(영조 19, 계해)에 비를 세웠는데, 비문의 전면에는 '우의정충헌김공휘구묘 정경부인전주이씨부좌(右議政忠憲金公諱構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의 글자를 한호(韓濩) 글자를 집자해서 새겼다. 음기(陰記)는 바로 김재로가 서술했으

3)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硏究』 第21號, 韓國實學硏究會, 2011, 237-302면.

4)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硏究(史部)』, 韓國東國大 出版部, 2018, 1388-1451면.

며, 김구의 손자이자 김재로의 조카 김치만(金致萬)이 썼다. 김재로 자신은 죽은 후 인천 남동구(南東區) 운연동(雲宴洞) 소래산(蘇萊山) 산복(山腹)에 묻혔다.





〈그림2〉 李景奭 奉敎撰, 吳竣 奉敎書, 吳挺一 奉敎篆, 「有明朝鮮國麟坪大君[李溍]兼五衛都捻府都捻管 贈諡忠敬公神道碑銘【幷序】」 戊戌(孝宗 9, 1658) 月日建, 『金石集帖』 第10冊(昃), 京都大學付屬圖書館 所藏.

우선 교토대학 『금석집첩』의 제11책(宿)과 제12책(列)을 보면 다음과 같이 김재로의 '선세(先世)'와 '조고 이하 4세(祖考以下四世)'의 비지 탁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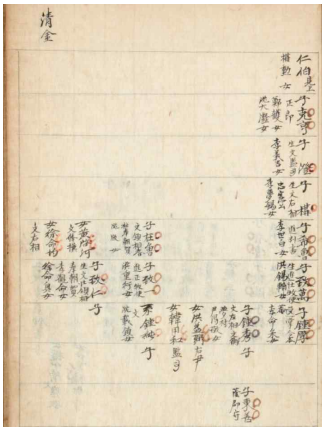
〈표1〉 『금석집첩』 내 김재로 선조의 비지 탁본

	고려대학교 『금석록』	교토대학 『금석집첩』	묘주(비주)	찬자, 서자, 전액자, 건립일 등
宿(先世)	十一代祖戶曹參議府君表	11-1. 戶曹參議贈議政府左贊成金公諱灌墓.	金灌	崇禎紀元後三 庚午今上二十六年(英祖二十六年 1750) 十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後孫金致萬書
	칠대조청평군부군표	11-2. 朝鮮秉忠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定州牧使贈兵曹判書淸平君金公友曾之墓 贈貞夫人南陽洪氏祔左.	金友曾	崇禎再丙寅(英祖二十二年 1746) 十月立 七代孫金在魯述 外七代孫尹得和書
	生邊七代祖處事府君表	11-3. 處士金公諱潤墓 配晉州河氏祔右.	金潤	時崇禎再丙寅(英祖二十二年 1746) 十月. 孫金在魯識. 金致萬書. 前面集韓濩字
	五代祖贈執義府君碣	11-4. 有明朝鮮處士 贈司憲府執義金公墓碣銘(幷序)	金繼	朴世采撰, 宋時烈書, 閔維重篆, 崇禎辛酉. 肅宗七年 1681. 九月日立
	高祖贈吏判府君碣	11-5. 有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捻府都摠管金公墓碣銘(幷序)	金仁伯	李宜顯撰. 外玄孫尹得和書. 玄孫金在魯篆. 崇禎紀元後重壬戌(英祖十八年 1742) 三月建
	曾祖沙川先生墓碑	11-6.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	金克亨	朴世采撰. 申琓篆

	(曾王考沙川先生碑)	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五衛都摠府都捻管行通訓大夫工曹正郎沙川先生金公神道碑銘(幷序)		
		11-7. 碑陰記	金克亨	男金洵書. 崇禎紀元後七十八年乙酉(肅宗三十一年 1705) 12月日立 庚午(英祖二十六年 1750) 三月改立. 金在魯述. 金致仁書.
列(祖考以下四世)	先祖考觀察府君墓表碑(王考觀察公碑表)	12-1. 全羅道觀察使贈領議政坎止堂金公諱澄之墓 貞敬夫人咸平李氏祔左	金澄	崇禎紀元後戊子(仁祖二十六年 1648) 五月日立
		12-2.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金公神道碑銘(幷序)	金澄	權尙夏撰, 李健命書. 閔鎭遠篆. 崇禎紀元後九十一年戊戌(肅宗四十四年 1718) 四月日立.
	先考忠憲公府君墓碑表(先考忠憲公碑表)	12-3. 有明朝鮮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贈謚忠憲公金公神道碑銘(幷序)	金構	李宜顯撰. 女婿徐命均書. 俞拓基篆. 崇禎紀元後再癸亥(英祖十九年 1743) 十月立
		12-4. 右議政忠憲公金公諱構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	金構	上之十九年癸亥(英祖十九年 1743) 九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 男金在魯述. 孫金致萬書
	伯氏參判府君墓表(伯氏參判公表)	12-5. 有明朝鮮戶曹參判金公希魯之墓 貞夫人李氏祔左.	金希魯	南有容撰. 洪鳳祚書. 外弟尹得和書. 崇禎百二十九年丙子(英祖三十二年 1756) 十月日立
	亡姪侍直墓表(亡姪侍直表)	12-6. 高隱堂金公致萬之墓	金致萬	閔遇洙題. 崇禎三丙子(英祖三十二年 1756) 十月日立
		12-7. 題格浦壁上.	格浦壁	乙亥(肅宗二十一年 1695) 暮春 △梅丈 金構
張(儉齋碑/胤相)	文敬公僉齋先生楑碑墓表(文敬公僉齋先生碑表)	13-1. 有明朝鮮國嘉善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義禁府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捻管諡文敬公儉齋金先生神道碑銘(幷序)	金楑	李觀命撰. 甥姪尹得和書. 俞拓基篆. 崇禎紀元後百十七年甲子(英祖二十年 1744) 五月建
		13-2. 文敬公儉齋金先生諱楑墓贈貞敬夫人全州李氏祔右 貞敬夫人礪山宋氏祔左. 陰記.	金楑	男金若魯述. 金尙魯書. 上之二十九年癸酉(英祖二十九年 1753) 二月追刻
	堂從故左相表	13-3. 朝鮮議政府左議政贈諡忠正晩休金公諱若魯墓 贈貞敬夫人延安李氏祔左	金若魯	金在魯撰. 崇禎紀元後三乙亥(英祖三十一年 1755) 十月 日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韓濩字.
寒(傍親)	伯從高祖母閔氏表	14-1. 贈戶曹參議金公忠伯 配贈淑夫人驪興閔氏之墓	金忠伯	崇禎紀元後再丙寅(英祖二十二年 1746) 三月日立. 前面集韓濩字. 陰記玄孫金在魯述. 五代孫金致萬書

	仲從高祖表	14-2. 贈執義金公孝伯之墓 贈淑夫人瑞山柳氏祔左	金孝伯	從玄孫金在魯撰. 洪鳳祚書. 崇禎紀元百二十四年辛未(英祖二十七年 1751) 五月日立 前面集韓濩字.
	伯從曾祖表	14-3. 淸風金公益礪之墓及陰記	金益礪	從曾孫金尙魯.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二十八年 1752) 五月立.
	仲從曾祖表	14-4. 處士金公克孚墓 元配文化柳氏祔 后配咸平李氏祔	金克孚	從曾孫金尙魯述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二十八年 1752) 五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柳權字
	從祖同敦寧公表	14-5. 贈貞夫人全州李氏(祔左) 朝鮮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公諱洵之墓	金洵	孫金鳴魯書. 後記 從孫金在魯述幷書. 崇禎紀元後再壬戌(英祖十八年 1742) 八月男金枋立石.
	照川公友孟 [忠州遠代傍親四人表 一]	14-6. □□□夫行照川郡守公之墓 全義李氏附葬	金友孟	隆慶二年(宣祖元年戊辰 1568) 二月二十八日孫金士元立石
	承仕郎公汝明 [忠州遠代傍親四人表 二]	14-7. 承仕郎金公之墓 端人南原梁氏(附葬)	金汝明	男金士元立石
	司猛公欣孫 [忠州遠代傍親四人表 三]	14-8. 禦侮將軍行忠佐衛司猛金公之墓	金欣孫	正德十一年丙子(中宗十一年 1516) 歲四月日立.
	贈參議公蘭馣 [忠州遠代傍親四人表 四]	14-9. 贈通政大夫工曹參議金公之墓 淑夫人豈原吳氏之墓	金蘭馣	崇禎四年(仁祖九年辛未 1631) 十二月初二日立.
	再從茂朱表碣	14-10. 有明朝鮮通訓大夫行茂朱府使金公墓碣銘(幷序)	金遞魯	宋明欽撰, 再從姪金致仁篆. 男金致信書. 崇禎三己卯(英祖三十五年 1759) 七月日立.
	從姪進士表	14-11. 朝鮮進士金致永之墓 配恭人淸州韓氏祔左	金致永	韓翼謇識.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二十八年 1752) 十月立. 前面集韓濩字 陰記集柳權字.

『금석속첩』으로 구성된 '來'자 책, '暑'자 책, '往'자 책, '秋'자 책, '收'자 책 등 5책도 모두 김재로의 후손이 김재로와 그 친인척 묘주의 비문 탁본을 주로 수집한 것이다. 특히 '往'책에는 김재로의 묘표가 들어 있다. 즉 교토대학『금석속첩』제206책(往)에 들어 있는「소산묘표(蘇山墓表)」와「蘇山下墓表」는 김재로가 묘주인 비석들의 탁본이다. 즉「소산묘표」는 곧「영의정김재로묘 정경부인청송심씨부좌(領議政金在魯墓貞敬夫人靑松沈氏祔左)」의 비문으로, 남유용(南有容)이 찬하고, 사위 서무수(徐懋修)가 글씨를 써서, 1761년(영조 37, 신사)에 세웠다. 이 묘비문은 남유용의『뇌연집(雷淵集)』제24권에「의정부영의정치사증시충정공김공묘표(議政府領議政致仕贈謚忠靖金公



〈그림3〉『萬家譜』淸風金氏 部分.

墓表)」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편, 행장과 묘지명은 김종후(金鍾厚)가 지었다.[5)]

- 來(續) :「金谷墓表舊表」,「公山墓表」(無陰),「天龍墓表」(無陰),「黃金谷墓表」,「方夏洞墓表」,「淸平君府君墓碑舊表」,「大護軍府君墓表」(無陰),「騖嶺處事府君墓舊表」(無陰),「虞侯府君墓表」(無陰)
- 暑(續) :「贈執義府君墓表」,「贈判書府君墓表」,「五峰墓表碣」,「綾巖墓表」,「夢村床石刻字」,「坎止堂懸板」,「沙川墓門碑」
- 往(續) :「蘇山墓表」,「蘇山下墓表」,「冷泉魂石識」
- 秋(續) :「蘇阡新表」,「兪漢後妻金氏誌」,「金溝公墓表」(無陰),「萬戶公墓表」(無陰),「贈參議公墓碣」,「厚齋公墓表」(無陰),「卜竹洞墓表」,「白川公墓碣」,「寶成公墓表」,「監司公墓表」,「淵淵墓表」
- 收(續) :「雙山判書府君墓表」(無陰),「碣山墓表」,「鞍峴墓表」,「龜山墓表」,「粉土洞墓表」

『금석집첩』은 후지모토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795년(정조 29)에 세운 비석을 탁본한 것이 가장 새롭다. 김재로 몰후 아들 고정(古亭) 김치인(金致仁, 1716-1790)과 종손 몽촌(夢村)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때에 편찬된 듯하지만, 사실은 1805년(순조 5)과 1807년(순조 7)에 세운 비석도 탁본한 것이 있다. 따라서 현존본은 순조 연간에 최종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학교에 소장『금석록』의 첫 면에는 총목(總目)이 있어서, 이를 통해『금석집첩』수록 탁본의 전체 성격을 엿볼 수가 있다.

〈표2〉 고려대학교 소장『금석록』총목

	總目	數量(冊數)		總目	數量(冊數)
1	天朝	0(5에서0으로 수정, 散帙卷에 편입)	18	遺逸 名蔭儒	4
			19	蔭官	9(續 1을 포함)
2	前朝 本朝	7(續 2를 포함)	20	武將 武臣	6(續 1을 포함)
3	嬪 後宮 宗室 翁主	6(續 1를 포함)	21	儒士	5(續 1을 포함)
4	本宗	9(續 5를 포함)	22	文蔭儒短折人	1
5	先賢 學問	15(續 1를 포함)	23	名文名筆	1
6	死節 節義	7	24	湖南人	1
7	相臣	20(續 1를 포함)	25	嶺南人	1
8	正卿	25(續 1를 포함)	26	關西北關人	2
9	亞卿	13(續 1를 포함)	27	婦人	1
10	文堂上	10	28	世家	6
11	文堂下	5	29	前朝人 國初人	5

5) 金鍾厚,「仲祖領議政忠靖公行狀」,『本庵集』卷9;「仲祖領議政忠靖公墓誌銘幷序」,『本庵集』卷8.

12	名臣	2	30	閭巷人	1
13	國舅	3(續 1을 포함)	31	凡非墓碑諸紀事	12(續 3을 포함)
14	駙馬	2	32	戰功	1
15	勳臣	2	33	散帙	31(續 1을 포함)
16	蔭宰正從二品	1		釋寺	11
17	蔭堂嘉善	1	計		226(續 20을 포함)

『금석록』에서는 '天朝' 분목을 따로 설정했으나, 현전하는 교토대학 『금석집첩』을 보면, 그 분류목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금석록』에도 '산질권(散帙卷)'에 편입하라는 언급이 있다.[6] 탁본의 최종 성책 때 그 분류목 내의 탁본들을 각각의 해당 부류에 분속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萬東祠碑(入散帙卷)
宣武祠碑
劉都督題名碑(並入非墓碑諸紀事卷)
劉都督威德碑 → 제185책(名자 책)
楊經理去思碑 → 제161책(使자 책)
釜山萬經理勝戰碑 → 제161책(使자 책)
望日思恩碑 → 제157책(彼자 책)
遊擊將藍公碑 → 제157책(彼자 책)
委官林公濟碑 → 제157책(彼자 책)
天將吳惟忠去思碑[吳總兵淸淑碑] → 제174책(羔자 책)
天將吳宗道去思碑 → 제174책(羔자 책)
姜王二詔使去思碑 → 제174책(羔자 책)
天將東征詩碑(並入散帙卷) → 제159책(靡자 책)



〈그림4〉『금석록』, 고려대 육당문고 소장.

교토대학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의 보존현황은 〈표3〉과 같다.

6) '산질(散帙)' 항목의 세부 목차를 보면 '산질(散帙)' 아래에 "당초 얻는대로 책을 만들고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질(散帙)'이라고 하였다.[當初隨得作冊, 不分類, 故曰散帙]"라고 밝혔다. 『금서록』을 처음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한 구자훈·한민섭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산질(散帙)'은 바로 『금석록』의 최초 항목이고, 『금석록』 분류의 시작점인 것이다. 김재로가 금석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는, 각 지역에서 얻은 금석문을 일단 분류없이 책으로 엮었던 것이다. 후에 분량이 늘어나면서 분류를 한 것이고,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석문들이 현재 '산질(散帙)'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후에 재분류를 통해 당초 항목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시 '산질(散帙)'로 편입하기도 하였다." 구자훈·한민섭, 앞의 글.

〈표3〉 교토대학『金石集帖』과『金石續帖』의 보존현황, 서근 표시, 후지모토 유키오 정리 번호(제155책 罔자 책은 실물 미확인)

No.	千字文	金石續帖	서근	후지모토 교수 정리번호
1	天001		前朝殿陵/本朝穆翼度三王陵	1
2	地002		桓祖陵/列祖御迹	2
3	玄003		十陵表/善州王子碑/閔氏先墓碑	3
4	黃004		八陵表/世子嬪/世孫	4
5	宇005		英陵/懿陵/雙樹/文會/御製懸板	5
	宙006	213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209
	洪007	214 金石續帖		210
6	荒008		嬪/王子/君/宗室/大君/金監察/金貴人	6
7	日009		宗臣	7
8	月010		大君/王子/宗室	8
9	盈011		仁城/仁興/檜原	9
10	昃012			10
	辰013	215 金石續帖		211
11	宿014		先世	11
12	列015		祖考以下四世	12
13	張016		儉齋碑/胤相	13
14	寒017		傍親	14
	來018	216 金石續帖		204
	暑019	217 金石續帖		205
	往020	218 金石續帖		206
	秋021	219 金石續帖		207
	收022	220 金石續帖		208
15	冬023		先賢	15
16	藏024		先賢/學問	16
17	閏025		先賢	17
18	餘026		學問/大臣	18
19	成027		先賢碑碣/書院碑	19
20	歲028		先賢/學逸	20
21	律029		先賢/學問	21
22	呂030		先賢	22
23	調031		學問	23
24	陽032		學問/文臣	24
25	雲033		學問/文臣/林林谷/愼樂水	25
26	騰034	(書架 사진 無)		26
27	致035		學問/文臣/學問	27
28	雨036		學問	28
	露037	221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212
29	結038		死節	214
30	爲039		死節	214
31	霜040		節義	29
32	金041		節義	30
33	生042		節義	31
34	麗043		死節	32
35	水044		死節人祠墟墓	33
36	玉045		相臣一	34
37	出046		國初相臣二	35
38	崑047		相臣三	36
39	岡048		相臣四	37

40	劍049		相臣五	38
41	號050		相臣六	39
42	巨051		相臣七	40
43	闕052		相臣八	41
44	珠053		相臣九	42
45	稱054		相臣十	43
46	夜055		相臣十一	44
47	光056		相臣十二	45
48	果057		相臣十三	46
49	珍058		相臣十四	47
50	李059		相臣十五	48
51	柰060		相臣老峰父子十六	49
52	菜061		相臣十七	50
53	重062		相臣十八	51
54	芥063		相臣十九	52
	薑064	空番		
55	海065		正卿	53
56	鹹066		正卿	54
57	河067		正卿	55
58	淡068		正卿	56
59	鱗069	(書架 사진 無)		57
60	潛070		正卿	58
61	羽071		正卿	59
62	翔072		正卿	60
63	龍073		正卿	61
64	師074		正卿	62
65	火075		正卿	63
66	帝076	(書架 사진 無)		64
67	鳥077		正卿	65
68	官078		國舅/正卿	66
69	人079		正卿	67
70	皇080	(書架 사진 無)		68
71	始081		正卿	69
72	制082		正卿	70
73	文083		正卿	71
74	字084		正卿	72
75	乃085		正卿	73
76	服086		正卿	74
77	衣087	(書架 사진 無)		75
78	裳088		正卿	76
79	推089	(書架 사진 無)		77
	位090	222 金石續帖		
80	讓091		正卿	78
81	國092	(書架 사진 無)		79
82	有093		亞卿	80
83	虞094		亞卿	81
84	陶095		亞卿	82
85	唐096		亞卿	83
86	弔(吊)097		亞卿	84
87	民098		亞卿	85
88	伐099	(書架 사진 無)		86
89	罪100		亞卿	87
90	周101		亞卿	88
91	發102	(書架 사진 無)		89

	殷103	223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90
92	湯104		文堂上	91
93	坐105		文堂上	92
94	朝106		文堂上	93
95	問107		文堂上	94
96	道108		文堂上	95
97	垂109		文堂上	96
98	拱110	(書架 사진 無)		97
99	平111		文堂上/蔭將尹同入	98
100	章112		文堂上/蔭參諸同入	99
101	愛113		文堂上/蔭監司同入	100
	育114	空番		
102	黎115		文堂下	101
103	首116		文堂下	102
104	臣117		文堂上堂下十三	103
105	伏118		文堂下	104
106	戎119		文堂下	105
107	羌120		名臣	106
108	遐121		名臣	107
	邇122	空番		
109	壹123		肅廟朝三國舅	108
	體124	224 金石續帖		215
110	率125		駙馬	109
111	賓126		駙馬	110
112	歸127		勳臣	111
113	王128		勳臣	112
114	鳴129	(書架 사진 無)		113
115	鳳130		蔭君同僉知都正	114
116	在131		名蔭	115
117	樹132		名蔭儒	116
118	白133		名蔭	117
119	駒134		名蔭儒	118
120	食135		蔭官	119
121	場136		蔭官	120
122	化137		蔭官	121
123	被138		蔭官	218
124	草139	佚(書架 사진 無) *후지모토 목록 저록 제122책		122
125	木140		蔭官	123
126	賴141		蔭官	124
127	及142		蔭官	125
	萬143	225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126
128	方144		黃莊武/李忠武/鄭起龍/李義立/閔濟章	127
129	蓋145		武將	128
130	此146		武將	129
131	身147		武將	130
132	髮148		武將/武臣	131
	四149	226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132
133	大150		儒士	133
134	五151			134
135	常152			217
136	恭153		儒士	135
	惟154	空番		
137	鞠155		文蔭儒短折人	136

138	養156		名文名筆中朝人	137
139	豈157		湖南/柳姓/林姓/兩金姓	138
140	敢158		嶺南人	139
141	毁159		關西人	140
142	傷160		北關人/西關人	141
143	女161		婦人	142
144	慕162		盧玉溪世德/姜舟川世德/李毅簡公世德	143
145	貞163		廣平大君以下子孫	144
	絜[烈]164	空番 *후지모토 목록 저록 185책 *후지모토 목록 저록 203책		185/203
146	男165		(淸江世家)	145
147	效166		梧陰世家	146
148	才167		潛谷世家	147
149	良168		前朝人	148
150	知169		前朝人	149
	過170	199[종래 空番으로 처리]		202(천자문 번차 없었음)
151	必171		前朝人/國初人	150
152	改172		前朝人	151
	得173	空番		
153	能174		廟閭/井墟/書院/旌閭	152
154	莫175		荒山碑/蠹石碑/忠義碑	153
	忘176	空番		
155	罔177	미확인		154
156	談178		洞里墟臺城橋***	155
157	彼179		天將碑/**墟/謫廬/***	156
158	短180			157
159	靡181		城海橋臺寺碑/天將碑	158
160	恃182		書院/祠宇/遺墟/旌閭/遺愛	159
	己183	227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160
	長184	228 金石續帖		161
	信185	229 金石續帖	서근 표기 없음	162
161	使186		戰功	
162	可187		昭寧園/遼東伯廟/忠武公廟	163
163	覆188		朴潘南/鄭監察/楞軒/楸灘/靜觀	164
164	器189		泉登/重峯戰傷/平壤精忠/平壤三忠	165
165	欲190		前朝宰相/本朝上薦/梧陰/卿宰/承旨/蔭官	166
166	難191		蔭官/***/婦人/**/灘叟/儒士/萬東祠	167
167	量192		烈婦/***/朴僉樞	168
168	墨193			169
169	悲194		金籠巖/沈安孝/府院/參判/領相	170
170	絲195		沈靑陽/李慶林/金東溟/李*陽/李鷄林	171
171	染196		大院君/***	172
172	詩197		李參知/趙禮判/尹忠義/李僉樞	173
173	讚198		亞卿/緋玉/**	174
174	羔199		天將/詔使/鄕校/武正卿/文正卿/學亞卿/二相/臣*	175
175	羊200		文臣/公卿/亞卿/蔭儒/麗朝人/宗室/太醫/詩人	176
176	景201		蔭官/文官	177
177	行202		韓鏡判/韓久庵/李再思/華谷李相	178
	維203	空番		
178	賢204		尹文孝/***	179
179	克205		書院碑/先儒墓誌/蔭官表碣	180
180	念206		洪僉正/參判/吳僉正/閔楊州/李參判	181

181	作207		文官/蔭官/儒士	182
182	聖208		全州李府尹兩代/宋瓢翁/金鶴洲	183
183	德209		朴允林/文緯世/尹善道/羅緯素/李衡瓟/清將表	184
184	建210		文武蔭	187
185	名211		勳武/戰功/天朝碑	188
186	立212			189
187	形213			190
188	端214			191
189	表215			192
	正216	230 金石續帖		
	空217	空番		
	谷218	空番		
190	傳219		190	193
191	聲220		191	194
192	虛221		192	195
193	堂222		193	196
	習223	金石續帖 ; 千字文不明 [현재 空番 처리]		201
194	聽224		釋寺	197
195	禍225		釋寺	198
196	因226		釋寺	199
197	惡227		釋寺	200
	(積)			
198	□	'騰'자책의 이본 [종래 千字文不明 처리]		186
199	□	'過'자 책 [종래 千字文不明 처리]		202(천자문 번차 없었음)
200	□	'烈'자 책 [종래 千字文不明 처리]		203
201	□	金石續帖 ; 千字文不明		

제200책(후지모토 목록 203)은 천자문 불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탁본은 모두 5점이다. 표지 안쪽 목록에는 6점으로 되어 있다.

錦山郡守李公重輝碣 / 領議政鹿川李公濡碑 / 南平縣監李公顯應碣 / 童子李偉中表 / 西部主簿李公洁碣(無篆) / 右承旨李公俔表(無陰) / 庶尹聽溪李公遇輝碣

여기에 수록된 탁본은 광평대군(廣平大君) 자손의 비에서 취한 것으로, 본래 烈자 책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의 제198책(후지모토 목록 186)은 종래 천자문 권차 불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騰'자책의 이본이다. 또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의 제199책(후지모토 목록 203)은 종래 천자문 권차 불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烈'자책의 이본이다. 또한 종래 제145책에서 烈자 책은 공번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지모토 목록의 185와 203은 모두 같은 烈자 책이다.

종래 교토대학 소장『금석집첩』217책 이외에, 서울대 규장각 소장 39책, 고려대 소장 28책, 개인 소장 5책이 더 있다고 운위되어 왔다. 이 수를 모두 합하면 289책으로, 그것은『금석록』저록의 226책(천자문 순서로는 227책)을 상회한다. 우선 서울대 규장각에 39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언급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한재 서울대 규장각에는 '得'자 책이 전존하는 것이 이미 후지모토 교수에 의해 확인되었다.

게다가 교토대학『금석집첩』이 '惡'자 책으로 끝나고 있고, 고려대『금석록』의 목차도 '惡'으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금석집첩』의 전체 책수는 226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금석집첩』의 전존본은 천자문의 권차가 복수로 들어 있는 책도 있다. 그런데도 전존본이『금석록』저록의 226책(천자문 순서로는 227책)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교토대 소장『금석집첩』에 3책이 복본이라는 사실과 함께, 고려대학교 소장『금석집첩』산일본이 대개 교토대학『금석집첩』소장본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도출할 수가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 탁본의 천자문 권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2), 玄(1), 荒(1), 日(2), 臧(1), 餘(1), 歲(1), 雲(1), 騰(1), 致(1)
雨(3), 結(2), 霜(2), 生(1), 玉(1), 出(1), 崑(3), 崗(1), 劍(4), 號(2)
臣(1), 闕(1), 珠(1), 稱(1), 菜(1), 海(2), 鹹(1), 淡(2), 鱗(2), 潛(4)
羽(2), 翔(2), 龍(1), 師(1), 火(2), 鳥(1), 人(1), 皇(1), 制(1), 字(1)
裳(1), 推(1), 國(1), 虞(1), 弔(2), 罪(1), 周(2), 黎(2), 臣(2), 戎(1)
羌(1), 邇(2), 壹(1), 歸(2), 鳳(2), 樹(3), 場(3), 被(1), 賴(1), 及(1)
方(1), 鞠(1), 養(3), 豈(2), 敢(2), 毁(1), 傷(1), 女(1), 慕(2), 烈(1)
效(1), 過(1), 改(1), 能(2), 莫(1), 忘(1), 談(4), 短(2), 靡(1), 特(2)
欲(2), 難(3), 量(1), 墨(3), 悲(2), 染(2), 詩(1), 羔(3), 羊(1), 景(2)
維(1), 作(1), 德(1), 建(2), 聲(2), 虛(1), 習(2), 聽(3), 禍(7), 因(1)

그리고 교토대학『금석집첩』에서 천자문 공번과 고려대학교 소장 탁본의 천자문 권속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대조의 앞 항은 교토대학『금석집첩』공번이고, 뒤의 항은 고려대학교 소장 탁본의 유무를 밝혔다.

'薑'자 책 - 없음 / '育'자 책 - 없음 / '邇'자 책 - 탁본 3점 현존 /

'惟'자 책 - 없음 / '過'자 책 - 탁본 1점 현존 / '忘'자 책 - 탁본 1점 /
'維'자 책 - 탁본 1점 / '空'자 책 - 없음 / '谷'자 책 - 없음 /
'習'자 책 - 탁본 2점 현존.

교토대학『금석집첩』에는 禍자 책의 완본이 제195책(후지모토 목록 198)으로 존재하며 모두 19점을 수록하였는데, 고려대학교 소장 탁본첩 가운데는 禍자 책에 수록될 탁본 7점이 별도로 존재한다.『금석록』을 보면 禍자 책은 석사(釋寺) 부류 제224책이며, 모두 19점이 저록되어 있다. 교토대학『금석집첩』제195책 '禍자 책'의 19점은『금석록』제224책 '禍자 책'의 19점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소장 탁본첩의 해당 탁본은 복본(複本)임을 알 수 있다.

『금석록』224. 禍 : 醴泉龍門寺重修碑, 林川大普光寺碑, 神勒寺普濟石鍾碑, 神勒寺普濟大藏閣碑, 華嚴寺碧巖大師覺性碑, 深源寺霽月堂敬軒碑, 深源寺翠雲堂學璘碑, 竹山碧應大師釋崇碑[竹山碧應大師碑], 香山雪巖堂秋鵬碑, 香山玩虛堂圓俊碑, 香山靈巖堂智圓碑, 香山虛靜堂法宗碑, 香山碧虛大師圓照碑, 香山慈應大師信和碑, 香山月峰大師正佑碑, 香山月渚堂道安碑, 香山雲峰堂靈佑碑, 香山雲坡大師義俊碑, 香山松坡大師義欽碑(以上爲一卷)

〈표4〉 고려대학교 한적실 소장『金石集帖』禍字冊(釋寺) 일부

	碑主	碑名	撰者	書者	篆額者
50.2	碧應	竹山碧應大師碑	鄭斗卿	吳竣	朗善君李俁
50.4	覺性	華嚴寺碧巖大師覺性碑	白軒李景奭	吳竣	趙啓遠
49.3	秋鵬	香山雪巖堂秋鵬碑	僧安樂窩月渚	月渚	僧安樂窩月渚
49.7	法宗	虛靜堂法宗碑	李重協	楊萬元	楊萬元
49.6	信和	慈應大師信和碑	李德壽	李德壽	李德壽
49.9	正佑	月峰大師正佑碑	朴弼琦	朴弼琦	朴弼琦
49.4	義俊	雲坡大師義俊碑	警齋處士金時鼎	金時鼎	

3.『금석집첩』수록 묘비문의 문체적 특징

고대에 석비는 기능이 다양했다.『예기(禮記)』「제의(祭義)」에, "희생이 들어오면 비에 묶는다.[牲入麗於碑.]"라고 했고, 그 가공언(賈公彦) 주(注)에는 "궁묘에는 모두 비가 있어서, 해 그림자를 표시하여 시각의 빠르고 늦음을 안다.[宮廟皆有碑, 以識日影以知早晚.]"라고 했다. 청나라 단옥재(段玉裁)는『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 "옛날 종묘에는 비를 세워 희생을 묶어두었는데, 훗날의 사

람들은 그로써 그 위에 공덕을 기록했다.[古宗廟, 立碑繫牲, 後人因於上紀功德.]" 라고 했다. 기공비(紀功碑)는 대개 운문(韻文)으로, 송덕(頌德)의 명(銘)이 중심이었다. 진시황은 재위 28년에 각지를 순행하면서 돌에 공적을 새겼는데, 「태산각석비(泰山刻石碑)」는 그 하나이다. 한(漢) 이후 석비는 '서(序)'를 두게 되어, 비문의 전반부에 서(序)를, 후반부에 '명(銘)'을 두게 되었다. 묘비도 처음에는 명이나 간단한 서사문만 있다가, 서와 명을 갖추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석비와 묘비에 사용된 문장의 문체를 보면, ⓐ4언 중심의 한어문언문(漢語文言文), ⓑ선진고문(先秦古文)에 기원하는 한어고문(漢語古文), ⓒ사육변려문(四六騈儷文)의 한어문(漢語文), ⓓ이두식 조선한문(吏讀式朝鮮漢文)으로 나눌 수 있다. 한글을 사용한 비문은 매우 적다.

백제의 경우, 654년(의자왕 14)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의 비문은 사육변려체로, 구말(句末) 글자에 '가새법' 즉 평측교대법(平仄交代法)을 지키고 있다.[7] 즉 광운(廣韻)에 의한다면, '還'은 평성 갑성(匣聲) 산운(刪韻), '塔'은 입성 투성(透聲) 합운(盍韻), '雲'은 평성 운성(云聲) 문운(文韻)이다.

> 甲寅年正月九日奈祇城砂宅智積.
> 慷身日之易往, 慨體月之難還. 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
> 巍巍慈容, 吐神光以送雲. 峩峩悲貌, 含聖明以□□.

신라 진성여왕 9년인 895년에 해인사(海印寺) 부근의 전란에서 사망한 승군(僧軍)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승훈(僧訓)은 「오대산묘길상탑사(五臺山妙吉祥塔詞)」(「五臺山寺吉祥塔誌」)를 지었다. 사언제행(四言齊行)을 골간으로 하며 격구압운(隔句押韻)의 32구 운문이다.[8] 비음(碑陰)에는 승훈이 노래한 7언 8구의 「곡치군(哭緇軍)」이 있다. 평수운(平水韻)으로는 하평성 제5 歌운을 사용했다. 그런데 같은 해 조성된 또 다른 「해인사묘길상탑지」 2판은 최치원(崔致遠,

---

7) 井間中에 四行五十六字가 殘存.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a.

8) 慶南陜川郡 海印寺 一柱門 앞 吉祥塔에 奉安되어 있다.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b;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Ⅲ, 國史編纂委員會, 1995; 韓國歷史硏究會 古代史分科,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857-?)이 글을 지었다. 제1판은 원문(願文), 건립물자, 건립집단을 적었고, 제2판은 전몰자 명단을 적었다. 제1판의 전반은 4언 제행, 각구압운(各句押韻), 매2구 환운(換韻)이나, 후반은 산행(散行)이되 입성자 力・級・識을 통압(通押)했다. 즉 제1판은 운산병용(韻散倂用), 제산결합(齊散結合)의 글이다.

唐十九帝, 中興之際. 帝・際: 거성 제8 霽운
兵凶二災, 西歇東來. 災・來: 상평성 제10 灰운
惡中惡者, 無處無也. 者・也: 상성 제21 馬운
餓殍戰骸, 原野星排. 骸・排: 상평성 제9 佳운

粵有海印寺別德僧訓, 晝傷痛于是, 乃用施導師之力.
誘狂衆之心, 各捨芧實一科, 共成珉甃三級.
其願輪之戒道也, 大較以護國爲先, 就是中特用拯拔寃橫沈淪之魂識.
禱祭受福, 不朽在玆.
時乾寧二年申月旣望記
*力: 입성 제13 職운, 級: 입성 제14 緝운, 識: 입성 제13 職운.

다만, 한반도의 석비와 묘비에 사용된 비문체는 ⓑ 선진고문에 기원하는 한어 고문이다. 교토대학『금석집첩』에 수록된 석비와 묘비의 문체는 모두 ⓑ이다.

한국 삼국시대의 비지(碑誌) 자료는 극히 적다. 408년(광개토대왕 18년)의 「덕흥리고분묘지」, 414년(장수왕 3년)의 「광개토대왕능비」, 525년의 「무녕왕묘지」와 매지권(買地券), 529년의 「무녕왕비묘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무녕왕묘지」[9]와 매지권[10]은 극히 짧은 한문체이다. 또한 「덕흥리고분묘지」, 「광개토대왕왕능비」, 「무녕왕묘지」, 「무녕왕비묘지」 등은 모두 찬자(撰者)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고려시대(918-1392)에 들어서서 묘지(墓誌)의 '서(序)'는 고문체로 변화하고, 압운의 '명(銘)'을 두게 되며, 11세기에는 묘비와 묘지에 찬자를 기록하게 된다. 고려 중후기가 되면 명(銘)은 일운도저(一韻到底)・격구압운(隔句押韻)만이 아니라 통운(通韻)・환운(換韻)의 복잡한 형식을 취하는 것도 많아진다.

9) 「武寧王墓誌」.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 五月丙戌朔, 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 十二日甲申, 安厝登冠大墓, 立志如左."
10) 「武寧王陵誌石」(買地券, 六行 五十八字). "錢一万文, 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以前件錢. 訟[詣]土王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 故立券爲明. 不從律令."

고려의 묘지 가운데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자연묘지명(李子淵墓誌銘)」이다. 이자연(1003-1061)의 본관은 인천(仁川)으로, 시조 이허겸(李許謙)은 고려 현종 때 문관이었다. 이자연은 1052년에, 셋째 딸을 고려 제11대 문종의 왕비로 삼았다. 이로써 고려 순종, 선종, 숙종, 그리고 인종은 모두 인천 이씨로부터 왕비를 맞았다. 「이자연묘지명」의 제액(題額)은 「고려국고추성좌운보사공신개부의동삼사검교대사수대부삼중태광문하시중판상서리부삼사사상주국감수국사증수태사중서령장화이공묘지명병서(高麗國故推誠佐運保社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大師守大傅三重太匡門下侍中判尙書吏部三司事上柱國監修國史贈守太師中書令章和李公墓誌銘幷序)」로, '장사랑상서병부원외랑지제고사비어대(將仕郎尙書兵部員外郎知制誥賜緋魚袋)'의 관함을 지닌 이성미(李成美)가 지었다. 명(銘)은 입성 屑운을 일운도저・격구압운했다.

翠阜兮寥寥, 寒泉兮咽咽.
玄扃兮一閉, 素凡兮長別.
嗟琁昊之莫問, 痛冏林之遽折.
陵遷谷變兮珉斯貞, 雪白蘭芳兮名不滅.

'광정대부 정당문학 보문각대학사 동수국사 치사(匡靖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致仕)'의 김훤(金晅, 1258-1305)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남겼다. 대덕 9년 을사(大德 九年 乙巳, 1305) 2월 13일 작성한 것으로, 제액은 「도첨의찬성사김훤자찬묘지(都簽議贊成事金晅自撰墓誌)」이다. 지음(誌陰)에는 김훤의 사후, '봉익대부 밀직사사 문한사학 승지 치사(奉翊大夫密直司事文翰司學丞旨致仕)'의 이진(李瑱)이 김훤의 생평을 작성하고, 문생급제(門生及第)의 고문계(高門啓)가 글씨를 쓴 문장이 새겨져 있다. 명은 4장(四章)으로, 각 장 8구 각 구 4언이다. 제3장은 일운도저이지만, 나머지는 인운통압(隣韻通押), 평상운통압(平上韻通押), 거상운통압(去上韻通押)이다.

교토대학 『금석집첩』의 묘비 탁본들은 이 이후의 것들을 모은 것이어서, 찬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찬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명의 압운 방식은 다양하다.

4.『금석집첩』 수록 석비(비묘비) 탁본

석비는 사적의 기념, 사건 평결의 공표 등에 활용되었으며, 일정 집단의 역사인식을 보강했다. 기념물로서의 석비는 민족이나 집단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내적으로 저항과 승리의 경험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는 도구였다. 한반도에서는 고대로부터 국가, 관청, 혹은 상층 가문이 이로한 석비를 건립했다.

1) 기적비(紀蹟碑)와 공신비(功臣碑)

414년의 「광개토대왕릉비」는 기적비(紀蹟碑)의 기능을 지녔다. 광개토왕의 신이한 출생담, 영토확장의 공적에 관한 서술을 한 뒤에 수묘(守墓)에 관한 긴 유언을 첨가했다. 축언(祝言)은 없다. 수묘 유언 앞까지는 4언 제언(齊言)이 아니라 허사(虛辭)를 사용한 고문체에 가깝다. 변려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詞)는 있지만 압운의 명(銘)은 아니다.

신라는 6세기부터 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던 듯하다. 지증왕(智證王, 재위 500-514)과 법흥왕(法興王, 재위 540-576)의 시기에 세운 석비에는 법령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글이 새겨져 있다. 진흥왕은 창녕(昌寧), 북한산(北漢山), 황초령(黃草嶺), 마운령(磨雲嶺) 등에 이른바 순수비(巡狩碑)를 세우고, 단양(丹陽)에는 적성비(赤城碑)를 세워, 국가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신민들 포상하고 새로 편입된 지역의 민심을 위로했다. 다만, 순수비 등에 산하의 신성성을 공인하는 기능은 없었든 듯하다. 14세기 고려 말에 이르러 산악의 신성성을 찬미하는 석비가 등장한 듯하다. 이 일은『고려사』제43권 공민왕 21년(1372) 5월 계해에 명나라 환관 연손달마실리(延孫達麻失里)와 손내시(孫內侍)가 가져온 명 중서성(中書省)의 자문(咨文)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석비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석집첩』의 수집가는 이러한 고대, 중세의 기적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고대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전왕조의 후예에게 관직을 주고 조상 제사를 행하게 하는 삼각(三恪) 제도가 있었다. 고려 왕조는 선대 왕조의 능묘에 대한 제사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선 왕조는 선대 왕조의 능묘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역사적 정통성을 공표했다. 즉 조선 왕조는 단군을 제사하는 구월산 삼성사(九月山三聖祠)와 평양 숭령전(崇靈殿), 기자(箕子)를 제사하는 평양 숭인전(崇仁殿), 신라시조를 제사하는 경주 숭덕전(崇德殿), 고려 시조를 제사하는 마전 숭의전(麻田崇義殿) 등을 관리하고, 각 사당의 묘정에는 기념비를 세웠다. 또 조선 초 기자 현창 사업의 일환으로 변계량(卞季良, 1369-1403)은 「기자묘비명(箕子廟碑銘)」을 작성했다. 「기자묘비명」[11]은 뒷날 윤두수(尹斗壽)의 『기자지(箕子志)』, 이이(李珥)의 『기자실기(箕子實記)』, 서명응(徐命膺)의 『기자외기(箕子外記)』로 이어지는 기자 추숭의 기점에 해당한다. 기자 관련 비석도 「기자능비(箕子陵碑)」, 「기자능표(箕子陵表)」, 「기자묘재실비(箕子墓齋室碑)」 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국학의 정비를 알리기 위해 변계량은 「유명조선국학신묘비명(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을 남겼다. 두 글은 『동문선』과 변계량의 문집 『춘정집』에 모두 실려 있다.

『금석집첩』의 수집가는 조선시대에 선대 왕조를 위해 세운 기념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수집해 두었다. 즉 제1책(天)에 다음과 같은 비석의 탁본을 수록해두었다.

① 崇仁殿碑銘(幷序) 崇仁殿. 李廷龜奉敎撰, 金玄成奉敎書, 金尙容奉敎篆. 萬曆41年(光海君五年癸丑, 1614) 3월 일 金蓋國奉敎立石.
② 箕子宮舊基. 箕子宮. 李廷濟識, 李眞洙書, 乙巳(영조 원년, 1725) 2月 日.
③ 新羅始祖王墓碑銘(幷序). 신라시조왕. 趙觀彬撰, 洪鳳祚書, 俞拓基篆. 崇禎紀元後三乙亥(영조 31년, 1755)
④ 東明王墓[佚本文]. 東明王. 崇禎紀元後百有四年辛亥(영조7년, 1731) 12月 日.
⑤ 駕洛國首露王陵. 首露王. 許積識, 全△榮書.[12]
⑥ 駕洛國首露王妃普州太后許氏陵. 首露王妃.

또한 조선 왕조는 산악의 신성성을 인정하여, 기우제 등을 행했으나 산악을 찬미하는 석비는 세운 일이 없다. 조선 왕조는 산악의 관방(關防) 기능을

11) 卞季良, 「箕子廟碑銘」, 『동문선』 제121권 碑銘.
12) 정해년(1647년) 중춘(仲春)에 비를 세우고 상(床)과 섬돌 등을 정비하였다. 이때 일을 맡은 동종(同宗)으로 허목(許穆), 허륜(許崙), 허□(許□), 허구(許垢)를 밝히고 있다.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1739(2019.04.01 검색). 찬자 서자 미상.

중시했다. 관리들은 산성의 중수 사실을 후대에 고지하는 중수기(重修記)의 석비를 세운 것이 많다. 서울 남쪽 일장성(日長城), 즉 남한산성에는 정조 3년(1779) 6월 19일(경오), 남한산성 보축 공사를 마친 광주부윤(廣州府尹) 이명중(李明中)에게 가자(加資)하고, 수어사(守禦使) 서명응(徐命膺, 1716-1787)에게 고비(皐比)를 하사했다. 서명응은 「남성신수기(南城新修記)」를 각석(刻石)했다. 이 이전에도 조정이나 신료들이 산성비를 달리 세운 일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금석집첩』에도 이와 관련한 탁본은 수집되어 있지 않다.

신라 말 이래 고대중세국가는 전몰 군졸을 위한 위령제를 베풀었는데, 위령비 건립에도 주의를 쏟았을 것이다. 또한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는 국난 타개의 공적이 있는 인물을 현창하고 그 가문에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고려 왕조가 국난타개의 공적이 있는 인물에게 공적비를 세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5세기의 세종(재위 1418-1450)은 개국(開國), 좌명(佐命), 정사(定社)의 공신 명부를 선왕 태종의 신도비 비음에 새기도록 했다. 윤회(尹淮)가 지은 「정사공신비음기(定社功臣碑陰記)」가 하륜(河崙)의 문집 『호정집(浩亭集)』 부록에 전재되어 있다. 그 무렵 국왕의 명의로 개국공신에게 부여한 녹권(철권)의 실례를 보면, 입비(立碑)의 교령(敎令)이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신비를 세운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임진 전쟁 이후 전승비(戰勝碑), 대첩비(大捷碑), 거의비(擧義碑) 등이 지상에 나타났지만, 그 대부분은 관련 지역의 거주민인 재지세력이 발의하여 세운 것들이다. 즉, 「행주전승비(幸州戰勝碑)」, 「이순신명량대첩비(李舜臣鳴梁大捷碑)」, 「이순신좌수영대첩비(李舜臣左水營大捷碑)」,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 「김시민전성각적비(金時敏全城卻敵碑)」, 「충신의사단비(忠臣義士壇碑)」, 「십사의사묘정비(十四義士廟庭碑)」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또 1728년(영조 4)의 무신란 즉 이인좌란(李麟佐亂)을 진압한 이후, 사도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로서 토평(討平)에 공적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에 기록된 오명항(吳命恒, 1673-1728) 등의 공훈을 칭송한 공적비도 지역 사람의 발의로 세워졌다. 승전비나 기적비는 실상과 동떨어졌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인좌란 토평에 황선(黃璿, 1682-1728)의 공적이 컸다고 선전한 「평영남비(平嶺南碑)」는 후대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석비는 대구 감영 부근의 남귀산(南龜山)에 1780년(정조 4) 건립되었는데, 뒤에 폐기되었다. 탁본도 없고 비문 문장이 후대

의 문헌에 전재되어 있다.[13] 비문은 황선의 조카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이 짓고, 저본도 스스로 휘호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인물 평가에 엄격하여, 개인 공적비의 건립을 주저했다. 18세기 후반에 국왕 정조가 몇몇 공적비의 건립을 명한 예가 있을 따름이다. 『금석집첩』은 이러한 공적비의 탁본을 다수 수록했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조선 시대에 이루어진 사적비 가운데 이른 것은 정도전(鄭道傳, ?-1398)의 「여조적경원중흥비(麗朝積慶園中興碑)」이다. 1390년(공민왕 2) 정당문학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 겸 성균대사성으로 임명되자 공민왕이 이 비를 짓게 한 후 옷 한 벌과 어구(御廐)의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원문은 전하지 않는다.[14] 이행(李行, 1352-1432)의 「영묘조두문동비표(英廟朝杜門洞碑表)」는 두문동에 세운 비표의 글이다. 세종 때는 두문동 72현과 개경의 유민들을 무마하는 정책을 펴서, 두문동에 제사를 지내고 불조현(不朝峴)에 비석을 세웠다. 이행은 그와 관련한 글들을 많이 작성했다.[15]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도응(都膺)의 실기에 쓴 「『청송당실기』 서」에 「두문동비표」에 관한 언급이 있다.[16]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적비가 많이 건립되었다.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에는 특히 왕가의 사적비를 많이 세웠다. 〈표5〉에서 왕가 사적비 탁본의 목록을 볼 수 있다.

〈표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탁본 188첩 가운데 왕가 사적비 탁본

	拓本名	出土地/作成年代	撰者	書者	篆額者	內容
01	韃靼洞勝戰紀蹟碑	咸鏡道興遠/1829年	趙鐘永	徐俊輔	徐俊輔	太祖 李成桂의 武功을 칭송하는 石碑.
02	荒山大捷碑	全羅道南原郡雲峯面花樹里/1577年	金貴榮	宋寅	南應雲	태조의 荒山大捷을 칭송하는 石碑.

13)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下, 日韓印刷所, 1919.

14) 적경원은 공양왕 2년(1390) (초하루 을축) 계유일에 예관(禮官)이 서원군(西原君) 이하 왕의 4대 조상을 추봉하고 원(園)을 세워 제사를 담당할 관리를 둘 것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세운 것으로, 6월 갑자일 완공되었다.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철거했다. 『고려사』 권61 예지 길례 대사 제릉 공양왕 2년 정월 참조.

15) 이행은 「九貞忠錄」·「圃隱善友錄」·「杜門洞七十二賢錄」 등 여말의 충신과 杜門洞 72賢士들에 대해 기술한 글을 남겼다. 그 밖에 「杜門洞賜祭文」(辛未十月二十日)·「不朝峴言志錄」·「英廟朝不朝峴聯句」(庚申. 幸松京. 駐駕不朝峴. 親賦一句. 命從臣聯賡)·「不朝峴碑陰記」를 남겼다.

16) 張福樞, 「靑松堂實紀序」, 『四未軒集』 제7권 序.

03	敬德宮丕啓靈慶碑	黃海道開城/1694年(肅宗20)	李焞/權愈	李焞/吳始復	權珪	태조 私邸 敬德宮에 건립.
04	讀書堂舊基碑	咸鏡道咸州/1797年	正祖	正祖		태조 독서처에 건립.
05	穆淸殿丕啓靈慶碑	黃海道開城/1694年	權愈	李焞/李澈	權珪	태조 潛邸 穆淸殿에 건립.
06	安邊雪峯山釋王寺碑	咸境道安邊/1790年	正祖	正祖		釋王寺와 조선 왕실의 관계를 기록하여 건립.
07	永興府宮闥里紀蹟碑	咸鏡道永興/1829年(純祖29)	趙鐘永	趙萬永	趙萬永	태조가 자란 마을에 건립.
08	神懿王后誕降舊基碑	咸境道安邊/1825年	金履喬	金魯敬		태조 妃 神懿王后 韓氏의 탄생지에 건립.
09	正祖御製馳馬道碑	黃海道谷山河南山/1799年	正祖	朴宗薰	金羲淳	태조의 馳馬道 사적과 神德王后와의 조우처를 기념하여 건립 .
10	馳馬臺舊基碑	咸境道咸州/1797年	正祖	正祖		태조의 무예 연마처에 건립.
11	太祖高皇帝舊闕遺址碑	全羅道全州/1905年	高宗	高宗		태조의 옛 거처에 건립.
12	太祖高皇帝駐蹕遺址碑	全羅道全州/1900年	高宗	金永穆		태조의 駐蹕 유적지에 건립.
13	太祖高皇帝誕降舊里碑	咸境道/1905年	高宗	尹用求		태조의 誕降 舊里에 건립.
14	慶興府赤池紀蹟碑	咸境道恩德/1787年	正祖	李秉模	尹東暹	度祖의 慶興 유적지에 건립.
15	穆祖大王舊居遺址碑	江原道三陟/1899年	高宗	趙秉弼		穆祖의 유적에 건립.
16	癸巳年駐蹕處碑	平安道江西/1774年(英祖50)	英祖			宣祖의 유적에 건립.
17	博川聖蹟碑	平安道博川/1808年(純祖8)	金羲淳	徐榮輔	徐榮輔	宣祖의 유적에 건립.
18	仁祖大王龍潛時別墅遺基碑	漢城/1695年	肅宗	東平君李杭		仁祖의 潛邸에 건립.
19	仁祖大王誕降舊基碑	黃海道海州/1690年	閔黯	李震休	李震休	仁祖의 誕降 舊基에 건립.
20	仁祖大王誕降舊基碑[追刻]	黃海道海州/1720年	閔黯	李震休	李震休	仁祖의 誕降舊基에 건립한 석비에 追刻.
21	仁顯王后誕降舊基碑	漢城西部盤松坊/1761年	英祖	英祖		仁顯王后의 生家 舊基에 건립.
22	淑嬪崔氏本宅碑[考妣]	未詳/1734年(英祖10)		李橈		淑嬪崔氏 父 崔孝元와 母 洪氏의 유적지에 건립.
23	淑嬪崔氏本宅碑[祖考妣]	未詳/1744年(英祖20)		李橈		淑嬪崔氏 祖父 崔泰逸과 祖母 張氏의 유적지에 건립.
24	淑嬪崔氏本宅碑[曾祖考妣]	未詳/1744年		李橈		淑嬪崔氏 증조부 崔末貞과 曾祖母 유적지에 건립.
25	景慕宮胎室碑	慶尙道醴川/1785年				思悼世子 胎室 앞에 건립.
26	遲遲臺碑	京畿道水原/1807年	徐榮輔	尹師國	洪明浩	水原華城 遲遲臺에 건립.
27	明成皇后誕降舊里碑	京畿道驪州陵峴里/1904年		純宗		明成皇后 고향에 건립.

위의 27종 가운데 『금석집첩』에서 탁본을 수록한 것은 「달단동승전기적비(韃靼洞勝戰紀蹟碑)」와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이다. 왕실 기적비가 탁본 수집 시기보다 뒤늦게 수립된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2) 명 군사 및 사절을 위한 거사비(去思碑), 관왕묘비(關王廟碑), 무후묘비(武侯廟碑)

교토대학『금석집첩』에는 명나라 무장이나 사신을 위한 '거사비'가 있다. 제155책(罔자 책)의「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와 제161책(使자 책)의「양경리거사비(楊經理去思碑)」, 제174책(羔자 책)의「천장오유충거사비(天將吳惟忠去思碑)」,「천장오종도거사비(天將吳宗道去思碑)」,「강왕이조사거사비(姜王二詔使去思碑)」등등이 그 주요한 예이다.

〈표6〉 1598년 건립「楊鎬去思碑」비문.

원문
欽差經 理朝 鮮都 御使 楊公 去思碑 楊公名鎬號蒼(嶼河南)人庚辰進士」 萬曆二十五年奉」 命經理朝鮮秋倭賊蹂躪三道進逼京」 城公自平壤單車赴難督諸將擊却」 保全東國冬又親冒矢石催破賊鋒」 將圖再擧盡殲無何以流言回籍東」 民攀轅莫留墮淚立碑」 萬曆二十六年八月 日」

교토대학『금석집첩』제155책(罔자 책)의「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와 제161책(使자 책)의「양경리거사비(楊經理去思碑)」는 정유재란 뒤 이른바 '재조(再造)'의 공적을 올린 명나라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양호를 위해 세운 것이다. 후자의 제액(題額)은「경리조선우첨도어사양공거사비(經理朝鮮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 비제(碑題)는「황명흠차경리조선군무도찰원우첨도어사양공거사비명병서(皇明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銘幷序)」로, 이정귀(李廷龜) 찬, 김현성(金玄成) 서, 김상용(金尙容) 전(篆)이다.

1597년(선조 30), 양호는 명나라 5만 군사를 인솔하여 도래하여, 왜군의 북상을 저지했다. 1598년 선조는 한양 남문의 중서쪽(현 중구 서소문동 120번지)에 선무사(宣武祠)를 설치하여, 어필의 '再造藩邦(재조번방)'을 문미(門楣)에 걸고, 명나라 병부상서 형개(邢玠)와 장수 양호를 제사지냈다. 또한 조선 조정은 양호의 공적을 기념하려고, 1598년(선조 31), 1610년(광해군 2), 1764년(영조 40), 1835년(헌종 원년) 모두 4기의 석비를 세웠다. 1610년 선무사에 세운 비석은 이정구(李廷龜)가 찬술한 장편의「황명도어사양공거사비명병서(皇明都御史楊公鎬去思碑銘幷序)」를 새겼다.

그 후 1626년(인조 4)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은「조사강왕양공거사비(詔使姜王兩公去思碑)」의 비문을 지었다. 명나라 희종(熹宗)의 사절이 태자 탄생을 고하는 조칙 반포 후 귀환할 때 평안도와 황해도의 '기로대부(耆老大

夫) 및 백성천노(百姓賤奴)'가 발의한 것에 따라, 관찰사가 장계를 올려 입비를 건의했다. 후금이 흥기할 때 명나라에 대한 돈독한 관계를 환기하기 위해 조정과 지방관아가 동조하여 비석을 세웠다.

명나라 장수들이나 사신을 위한 거사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高尙顔(1553-1623):「天朝游擊將軍葉公淸德碑銘」,「天朝游擊將軍方公去思碑銘」
- 裴龍吉(1556-1609):「天將麻公頌功德碑銘」,「天將薛侯頌德碑銘」,「天將吳侯頌德碑銘」
- 李廷龜(1564-1635):「皇明都御史楊公鎬去思碑銘」
- 金 瑬(1571-1648):「欽差平遼便宜行事摠鎭左軍都督府都督同知毛公功德碑銘」
- 崔鳴吉(1586-1647):「詔使姜王兩公去思碑」
- 李宜顯(1669-1745):「欽差都司吳公宗道江華府去思碑陰記」
- 洪直弼(1776-1852):「皇明都司充東援中軍施公遺墟碑」

『금석집첩』에는 특이하게 청나라 장수의 묘표 탁본이 1점 들어 있다. 즉 제183책(德)의 다음 탁본이 그것이다.

「皇淸鎭南將軍蟒公墓表」
비주: 吳蟒. 劉茂惠 刻字.
康熙五十九年太歲庚子(肅宗46年 1720)金七月丙寅火朔十七日壬午木上石

조선에서는 정유재란 후 전국 각지에 관왕묘가 건설되고, 석비가 세워졌다. 1598년 울산(蔚山) 전투에 부상한 명나라 유격장군 진인(陳寅)이 숭례문(崇禮門) 부근 산록에 관왕묘를 창건한 것이 그 기원이다.[17] 이것을 남관왕묘(南關王廟) 혹은 남묘라고 불렀다. 1599년에는 명나라 신종(神宗)이 양호의 후임 만세덕(萬世德)에 4천 금을 보냈으므로, 조선 조정은 흥인문(興仁門) 동쪽에 터를 골라 동관왕묘를 짓기 시작해서 1601년 봄에 완공했다. 신종이 「顯靈昭德王關公之廟(현령소덕왕관공지묘)」라는 편액을 보냈다고 한다.[18] 이를 전후하여 평

17) 柳成龍,「記關王廟」,『西厓先生文集』卷16.“有遊擊將軍陳寅力戰中賊丸, 載還漢都調病. 迺於所寓崇禮門外山麓, 創起廟堂一坐, 中設神像, 以奉關王. 諸將楊經理以下各出銀兩助其費, 我國亦以銀兩助之. 自是諸將, 每出入參拜, 皆曰 爲東國求神助卻賊.”

18) 許筠,「勅建顯靈關王廟碑」,『惺所覆瓿稿』卷16.“天子曰: 然. 亟以四千金付撫臣萬世德, 立祠於朝鮮王京以享之. 自庚子冬始其役, 越二年春訖工. 其塑像圖繪之容, 殿堂廡宇門廠鼓鍾之樓, 凡百餘間, 悉依中國制. 請額於朝, 今年奉聖旨, 令以勅建顯靈昭德王關公之廟榜之門, 仍賜祭一壇焉.”

양, 성주(星州), 안동(安東), 남원(南原), 강진 고금도(康津古今島), 동래(東萊), 강화(江華), 개성(開城) 등에도 명나라 군대의 발의로 관왕묘를 세웠다.[19] 허균은 선조의 명으로 지은 「칙건관왕묘비(勅建關王廟碑)」가 있다.[20] 그 후 고종 연간에는 국가의 주도로 한양에 북관왕묘(1885년)와 서관왕묘(1902년)를 세웠다. 1920년에는 관성교(關聖教)가 창립되었다. 역대 군주의 관왕묘비문도 그 탁본이 장서각에 여럿 보관되어 있다.

⑷ 肅宗大王關王廟碑: 1695년(숙종 21) 御製御筆.
⑹ 肅宗大王關王廟碑[重刻]: 1695년 御製御筆의 중각의 탁본.
⑹ 英祖大王關王廟碑: 1730년(영조 6) 御製御筆.
⑹ 英祖大王關王廟碑[重刻]: 1730년 御製御筆의 중각의 탁본.
⑹ 景慕宮關王廟碑: 1785년 思悼世子의 睿製睿筆을 刻石.
⑹ 莊祖懿皇帝關王廟碑[重刻]: 1785년 思悼世子 睿製睿筆 刻石의 중각의 탁본.
⑹ 正祖大王關王廟碑: 1785년 正祖 御製御筆. 일명 「武安關王廟碑銘」.
⑹ 正祖宣皇帝關王廟碑: 1785년 正祖 御製御筆의 중각의 탁본.

교토대학 『금석집첩』에는 다음 관왕묘 비문의 탁본이 들어 있다.

제229책(信/續): 「御製御筆關王廟碑」 四(爲一卷)
제161책(使): 「安東關王廟碑」, 「古今島關王墓碑」(無前)

하지만 『금석집첩』은 관왕묘 비문을 망라하여 수록하지는 않았다.

1686년(숙종 12),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 영유면(永柔面) 괴천리(槐泉里)에는 충무후(忠武侯, 諸葛亮)의 석비가 세워졌다. 1592년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한 선조가 다음 해 서경(평양) 수복 후 영유현(永柔縣)에 주필(駐蹕)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 해 조선 조정은 영유현에 무후묘를 세웠다. 1663년(숙종 4)에는 사당을 보수하고, 1686년(숙종 12) 석비를 세웠다. 이민서(李敏敍)가 짓고, 김수증(金壽增)이 썼으며, 김만중(金萬重)이 전액(篆額)을 했다. 하지만 교

19) 孫淑景, 「19세기 후반 關王 숭배의 확산과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싼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 『古文書硏究』 第23號, 韓國古文書學會, 2003; 韓宗洙, 「朝鮮後期 肅宗代 關王廟 致祭의 性格」, 『歷史民俗學』 第21號, 韓國歷史民俗學會, 2005.

20) 許筠, 「勅建顯靈關王廟碑」, 『惺所覆瓿稿』 卷16. "又能拯屬國之難, 以紓我聖天子東顧之憂, 而東土百萬生靈, 受祉以安. 宜東民之願崇廟宇, 以俾祀於無窮也已. 余仰惟天子之恩, 王之德, 不敢忘乎懷."

토대학『금석집첩』에는 탁본이 들어 있지 않다.

1755년(영조 31)에는 남유용(南有容)이 짓고 서지수(徐志修)가 전액을 한「제갈량묘악비문천상추배기사비(諸葛亮廟岳飛文天祥追配紀事碑)」를 이태중(李台重)이 왕명에 따라 영청현(永淸縣)의 사당에 세웠는데, 21) 이 비석의 탁본도 교토대학『금석집첩』에는 들어 있지 않다.

교토대학『금석집첩』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혹은 수치스럽지만 중대한 비석들의 탁본을 망라하려는 계획에 따라 편성되지는 않은 듯하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 송파구(松坡區) 삼전도(三田渡)에 1639년(인조 17) 건립된「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大淸國之聖汗之功德之碑)는 탁본을 채집하지 않았다.22)

3) 선정비(善政碑)

조선의 화가 김홍도(1745-1806 이후)는 1778년에「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8폭을 제작했는데, 그 속에「노방노파(路傍艫婆)」란 제목으로 알려진 그림에는 아랫부분에 3기의 석비가 늘어서 있다. 이 석비는 선정비이다. 선정비는 청덕비(淸德碑), 덕정비(德政碑), 불망비(不忘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거사비(去思碑), 유애비(遺愛碑)라고도 한다. '포로비(蒲盧碑)'라고 기록한 예는 없다. 대개 석비이지만, 마애비나 수철비(水鐵碑)도 있다.

교토대학『금석집첩』에는 유애비의 탁본이 서너 점 수록되어 있다.

> 제160책(恃자 책):「泰仁申縣監潛善政碑」,「平壤李庶尹元孫遺愛碑」,「靈光慶郡守暹去思碑」,「晋州趙牧使錫胤遺愛碑」,「牙山趙縣監爾翻追慕碑」

주지하듯이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선정비가 나타났다. 북조의 북위에서 정광(正光) 3년(522) 조각된 지방관의 현창비인「장맹룡비(張猛龍碑)」는 그 한

---

21) 朝鮮總督府,『朝鮮金石總覽』下, 日韓印刷所, 1919.

22) 1636년에 후금은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는 조선에 조공과 명에의 파병을 요구했다. 인조가 거절하자 홍타이지가 친정(親征)을 행하여, 개전 후 40여 일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를 행했다. 홍타이지는 자신의 덕(德)과 인조의 과(過)를 드러내고 양자의 맹약을 명시하는 비문을 만주어, 몽골어, 한어로 석비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 결과 수립된 것이「대청황제공덕비」이다.

예이다. 비석은 현재도 산동성 곡부(曲阜)의 공묘(孔廟)에 보존되어 있다. 비액(碑額)은 「위노군태수장부군청송지비(魏魯郡太守張府君淸頌之碑)」이며, 비문은 해서로 1행 46자, 총 26행이다. 장맹룡은 현재 하남성에 속하는 남양군(南陽郡) 백수(白水) 출신으로, 희평(熙平, 516-518) 연간에 현 산동성 노군(魯郡)의 태수가 되었다. 이 장맹룡의 선정을 칭송하고자 군의 관리가 4년 걸쳐 비문을 연마하여 비를 세웠다고 한다. 장맹룡의 계보와 사람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씨의 가계와 장맹룡 본인을 칭송하는 운문으로 끝나고 있다.

한편『예문유취(藝文類聚)』의 '선정(善政)' 조항에는「양배자야단양윤상동왕선정비(梁裴子野丹陽尹湘東王善政碑)」,「진서릉위사공서주자사후안도덕정비(陳徐陵爲司空徐州刺史侯安都德政碑)」,「광주자사구양고덕정비(廣州刺史歐陽顧德政碑)」,「진릉태수왕려덕정비(晉陵太守王勵德政碑)」,「주왕포상용공육등늑공비(周王褒上庸公陸騰勒功碑)」,「수강총오흥군여릉왕덕정비(隋江總吳興郡廬陵王德政碑)」를 예시하고 있다.[23] 마지막의「여릉왕덕정비」의 비문이 4언 18구의 비교적 짧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장편의 변려문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선정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선정과 관련된 비석이나 석각으로는 조선에 들어와 1423년(세종 5) 강원도 주민들이 발의하여 황희(黃喜, 1363-1452)의 선정을 추억하여 세운 소공대(召公臺)가 가장 이르다. 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遠德邑) 노곡리(魯谷里)의 돌에 새겼던 유적이다. 1516년(중종 11) 황희의 4대손 황맹헌(黃孟獻)이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남곤(南袞, 1471-1527)에게 비문「소공대명병서(召公臺銘幷序)」를 의뢰하여 소공대비(召公臺碑)를 세웠다. 1577년 이 비가 비바람에 쓰러지자, 1578년(선조 11) 황희의 6대손 황정식(黃廷式)이 삼척부사가 되어 남곤의 외손 송인(宋寅, 1517-1584)의 휘호를 받아 재건립했다.[24] 남곤의 비문「소공대명병서」를 새긴 비석은 송덕비에서 파생되어 나온 일종의 유허비이다.

현존하는 유애비(송덕비)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조식(曺植, 1501-1572)이 합천군수 이증영(李增榮, ?-1563)을 위해 지은 유애비문을 1559년(명종 14) 10월에 새긴 석비이다.[25] 조식의 글은『남명집(南冥集)』에「이합천유애비문(李陜川遺

23)『藝文類聚』제52권 治政部 上 善政.
24) 方東仁,『嶺東地方金石文資料集』1, 關東大學校嶺東文化硏究所, 1984.

愛碑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석비는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2의 함벽루(涵碧樓) 입구에 이전되어 있다. 제액은 「이영공유애비(李令公遺愛碑)」이며, 비문의 글씨는 황기로(黃耆老, 1521-1567)가 썼다.[26]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탁본이 전하는 유애비(遺愛碑)로서 유명한 것이 1617년(광해군 9) 전라도 순천(順天) 영동(榮洞)에 세워진 팔마비(八馬碑)이다.[27] 고려 충렬왕 때 순천부사 최석(崔碩)이 내직으로 발령되자 주민들이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주었다. 최석은 한 필이 망아지를 낳자, 9필 전부를 주민들에 반송했으므로, 주민들은 덕을 칭송하여 팔마비를 세웠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석비가 훼손되자, 장로들이 재물을 모아, 1617년에 세운 것이다. 비음에는 '순천군중건팔마비음기(順天郡重建八馬碑陰記)'가 새겨져 있는데, 글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지었다.[28] 조선 후기에는 4자 4구의 고과조문(考課條文)을 새긴 비석이 대부분이다.[29] 교토대학 『금석집첩』에는 「팔마비」의 탁본도 수록하지 않았고, 4자 4구 고과조문 비석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다.

5. 『금석집첩』 수록의 묘도문자 탁본

한국에서는 묘비(墓碑)와 묘지(墓誌)로 망자를 위해 입언(立言)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다. 고려, 조선의 묘도문자는 당송의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문체와 형식을 변환시켰다. 고려 문인의 문집 가운데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이규보(李

25) 曺植, 「李陜川遺愛碑文」(陜川名增榮), 『南冥先生集』 卷2 墓誌.

26) 曺植, 「李陜川遺愛碑文」(陜川名增榮), 『南冥先生集』 卷2 墓誌. "ⓐ 何人無父母乎? 何父母無赤子乎? 赤子之喪慈母也, 人或有收養之者. 父母之哺赤子也, 愛有時而焉. 獨我公之爲父母也, 愛寧有時而間乎? 吾赤子之去慈母也, 人焉有收養之者乎? 朝不哺則飢, 夕不哺則瘁, 三不食則委, 吾赤子其塡於溝壑乎! 呼之不可, 借之不得, 合百萬而爲羣, 人五十而慕焉. 長言之于康衢, 被之以石焉. ⓑ 我父母者誰? 李學士增榮, 其人也. 吾赤子者誰, 陜川郡民也. 爲父母者何? 陜川郡守也. 其來也于于, 視我如傷, 其去也柴柴, 無石以載. ⓒ 我有田疇, 公則稼之. 我有桑麻, 公則衣之. 國有重徵, 官自應之. 民有菜色, 推食肉之. 興鄕約者, 敦倫理也. 殖周布者, 舒民役也. 孤犢觸乳, 匪怒而敎. 朱門索腴, 每達空緘. ⓓ 今者去矣, 愛莫從之. 獨念去者去而來者來, 來日之爲父母者, 未有學養子而後來. 爲赤子者, 亦未有學愛親而後孝者. 若此則繼有無窮父母, 亦有無窮孝思. 唯以思此父母而表遺愛也已, 容焉有揀父母之恩乎? ⓔ皇明嘉靖三十八年己未歲十一月日, 陜川郡人立."

27) 全羅南道 編, 『全南金石文』, 湖南文化社, 1990.

28) 李睟光, 「順天府重建八馬碑陰記」, 『芝峯集』 卷23 雜著.

29) 考課條文은 唐 이후의 관례를 참고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劉琴麗, 「德政碑與唐代州縣官員的政績書寫」, 『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 第42卷 4期, 四川師範大學, 2015.

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문집(東國李相國全集)』(1241-1251년 초간. 현존 完本은 18세기 간본)을 보면, 그 제35권에 비명(碑銘)과 묘지(墓誌), 그 제36권에 묘지(墓誌)가 수록되어 있다.[30]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지상의 묘비는 고승대덕(高僧大德)의 것이고, 사대부의 묘비는 지하에 묘지 형태로 묻혔다. ⓑ13세기 초 고려 중기에는 운문의 명(銘)을 둔 묘비가 정착했다. ⓒ고려시대에는 부인을 위한 묘지가 작성되었다. 이규보의 경우, 「금자광록대부참지정사상장군김공부인인씨묘지명(金紫光祿大夫參知政事上將軍金公夫人印氏墓誌銘)」를 작성한 예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요절한 자제를 위한 묘지인 광명(壙銘)이 제작되었다. 이규보의 경우, 「상자법원광명(殤子法源壙銘)」이 있다. 고려・조선에서는 여성 묘주의 묘비가 그리 많지 않았다. 여성은 사후 남편의 묘에 부장(祔葬)되는 항례가 많았고, 개별 묘비는 세우는 일이 드물었다. 단, 사대부 여성을 위한 묘지는 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당 이래 중국의 풍습과 유사하다. 이를테면 백제 무녕왕묘에는 왕비의 묘지가 별도로 있었다. 고려 때는 여성묘주의 비지로, 「최루백처염경애묘지명(崔婁伯妻廉瓊愛墓誌銘)」과 「최윤의처김씨묘지(崔允義妻金氏墓誌)」가 전한다.

염경애(1100-1146)는 25세에 최루백(崔婁伯, ?-1205)에게 시집가서, 4남 2녀를 낳고 47세로 죽었다. 최루백은 15세 때, 부친을 물어 죽인 호랑이에게 복수한 인물로, 『고려사』 열전, 조선시대의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최루백은 염경애의 묘지명을 작성하여, 부인의 덕행을 대화체로 서술했다.

최윤의 처는 광양군부인(光陽郡夫人) 김씨(金氏, 1110-1151)로, 호부상서삼사사(戶部尙書三司使) 김의원(金義元)의 장녀이다. 21세에 최윤의에게 시집가서 2남 3녀를 낳고 42세로 별세했다. 최윤의는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崔冲)의 증손자이며, 누이는 예종의 숙비(淑妃)인 장신궁주(長信宮主)이다. 1234년

30) 「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 「登仕郎檢校尙書戶部侍郎行尙書都官員外郎賜紫金魚袋尹公墓誌銘」, 「金紫光祿大夫參知政事上將軍金公夫人印氏墓誌銘」, 「金紫光祿大夫參知政事判禮部事鄭公墓誌銘」, 「金紫光祿大夫守司空尙書左僕射太子賓客田公墓誌銘」, 「殤子法源壙銘」, 「京山府副使禮部員外郎白公墓誌銘」, 「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銘」, 「壁上三韓大匡金紫光祿大夫守大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致仕琴公墓誌銘」, 「銀靑光祿大夫樞密院使御史大夫李公墓誌銘」.

(고종 21) 금속활자로 간행된『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편찬자로,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부인의 묘지를 작성했을 때 관함은 '조의대부 동지추밀원사 어사대부 지제고(朝議大夫同知樞密院事御史大夫知制誥)'였다.

여성묘주의 묘지를 엮은 관습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다. 주희(朱熹)도「부인여씨묘지명(夫人呂氏墓誌銘)」을 지은 일이 있어, 부군이 부인을 위해 묘지를 작성하는 일은 혐의롭지 않았다.

교토대학『금석집첩』에는 여성묘주의 묘표(墓表) 탁본이 여럿 수록되어 있다.

『금석록』159(女) *『금석집첩』제142책(女)
成摠郎君美配吳氏表(無前)(1661年)
許埜堂錦配元氏表: 8世孫許穆撰.
蔡弼善倫配權氏碣(1610年): 永嘉權氏墓碣銘. 申欽撰.
趙文剛末生配金氏表(無陰)(1707年改立)
梧陰先代固城朴氏表(1575年): 玄孫尹根壽撰
柳杆城公綽配李氏碣(無篆)(1560年): 令人李氏墓碣銘. 李滉撰.
宋承仕世英配李氏碣(無篆)(1667年): 鄭弘溟撰. 曾孫宋浚吉書.
鄭桐溪妣姜氏表(1633年): 貞夫人姜氏之墓. 男鄭蘊書.
沈北伯演配吳氏表(無陰)碣(無篆)(1654年): 贈貞夫人海州吳氏之墓. 黃屋撰.
南護軍柁配玄氏表(1688年): 曾孫領議政南九萬.
豊昌府夫人趙氏表(1741年): 閔維重夫人. 外孫李緈記.
朴黎湖妣辛氏表(1728年): 贈貞夫人辛氏之墓. 金昌翕撰.
*李監司萬稷後配朴氏表: 潘南朴氏之墓(1740年). 金鎭商書.
*李監司萬稷季配金氏表: 貞夫人光山金氏之表(1740年), 金鎭商書.
洪判書象漢配魚氏表(1756): 貞敬夫人咸從魚氏之墓. 洪象漢撰. (以上爲一卷)
○ 烈婦柳氏表碣, 南領相在夫人表, 朴醉琴夫人表, 閔留守審言第三配張氏表, 李參奉泰躋室宋氏碣, 權修撰碻配廣州李氏表 (以上入散帙卷)
※ 此外婦人之從夫同入者甚多不盡

『금석록』214(表) *『금석집첩』제192책(冊)
愼嬪金氏碑(1465年): 愼嬪金氏墓碣銘. 世宗嬪. 金守溫撰
熙嬪洪氏表(1582年): 熙嬪洪氏之墓. 中宗嬪. 宋寅撰.
昌嬪安氏碑(1683年): 昌嬪安氏神道碑碑銘幷序. 中宗嬪. 申晟撰.
貞淑翁主表(1628年): 貞淑翁主墓表. 宣祖女. 申翊聖撰.
達城尉徐公景霌貞愼翁主合葬表(1669年): 徐景夀之墓. 駙馬. 孫徐文尙撰.
海昌尉吳公泰周碣(無篆)(1720年): 吳泰周墓碣銘. 顯宗駙馬. 金昌翕撰.

海昌尉吳公泰周明安公主表(無前)(1688年). 明安公主(顯宗第三女)
御筆和平翁主表(無陰)
南領相在夫人表(無前)(1695年): 南在之夫人尹氏之墓. 十代孫南九萬撰.
朴醉琴夫人表(1516年): 天安金氏之墓.
閔留守審言第三配張氏表(1708年): 丹陽張夫人之墓. 權尙夏撰.
李參奉泰躋室宋氏碣(1757年): 貞敬夫人宋氏墓碣. 權尙夏撰.

비문의 제작은 계급성을 띤다. 석비는 대개 문형(文衡)을 쥔 문신이나 재지사족의 문사가 문장을 지었다. 묘비의 경우는 비주(碑主)는 왕족이나 그 인척, 사대부계급이 대부분이었고, 그 찬자(撰者) 역시 사대부계급의 친족 혹은 동류의 문장가가 대부분이었다. 단순히 한문을 짓기 어렵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얼이나 중인은 중인의 묘주를 위한 묘도문자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얼이나 중인이 국가의 기념비나 사대부묘주의 묘도문자를 짓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서얼 문인 이봉환(李鳳煥, 1701-1777)은 사대부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을 위한 묘지명을 지은 예가 있다. 하지만 그때 이봉환은 스스로 찬자를 일컬을 수는 없었다. 사대부의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찬자로, 그는 대작(代作)을 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서얼 가운데도 문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얼이 같은 서얼의 묘주를 위해서 묘도문자를 지은 예는 매우 적다.

『금석집첩』에는 본래 여항인 묘주의 비문 탁본을 모은 책(171得)이 있었다. 현재 이 '得'자 책은 서울대 규장각(古大 4016-8)에 『金石集帖』 1책으로 소장되어 있다.[31] 이것을 보면 서얼이 서얼을 위해 묘도문자를 지은 예, 사대부가 서얼이나 중인을 위해 묘도문자를 지은 예가 몇몇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여항인 묘주의 비문 탁본

得	『금석록』 171(得)	『금석집첩』 159(得) 空番 / 서울대 규장각 『金石集帖』 1책(古大 4016-8)		
	晉州姜孝元表	姜孝元之墓碑銘; 姜孝元墓[表]	姜孝元	崇禎庚戌(顯宗11年 1760) 五月 日 尤齋(宋時烈)先生書, [閔]鼎重書, 閔著重捐資立石
	劉村隱希慶表	2. 劉希慶墓[表陰記] 貞夫人陽村許氏祔左	劉希慶 字應吉 號村隱	金昌翕撰, 申靖夏書. 崇禎甲申後五十五年戊寅(肅宗24年 1689) 撰文後十八年乙未(肅宗41年 1715) 五月 日立

31) 藤本幸夫, 앞의 책, 1451-1452면.

	劉僉使自勗表	3. 劉自勗墓[表] 淑夫人慶州金氏祔右	劉自勖	崇禎甲申後七十二年乙未(肅宗41年 1715) 四月平山申宅夏述. 孤[劉]泰雄書.
	金護軍繼輝表	4. 金繼輝墓碣銘(幷序)	金繼輝 字子由	權伬撰. 男[金]義信書. 順治十八年(顯宗2年辛丑 1661) 月 日立
	贈判敦權致中表	5. 權致中墓[表] 贈貞敬夫人楊根咸氏祔	權致中 字汝和	[權]聖徵識. 崇禎紀元後再甲辰(景宗4年 1724) 二月 日.
	贈參判李龜逸表(無陰)碣	6. 李龜逸墓碣銘(幷序) 贈貞夫人丹陽禹氏祔左	李龜逸 字重陽	李龜休撰幷序. 李載厚篆. 崇禎甲申八十八年辛亥(英祖7年 1731) 五月 日立.
	同樞李遇聖表(無陰)碣	7. 李遇聖墓碣銘 贈貞夫人[雪]城金氏祔左	李遇聖	李德壽撰. 曺命敎幷篆書. 崇禎紀元後一百九年丙辰(英祖12年 1736) 十月 日立.
	折衝趙興琳表(無陰)碣	8. 趙興琳墓碣銘 淑夫人梁山陳氏祔左	趙興琳 字荊甫.	猶子[趙]顯基記. 安命說書. 崇禎紀元後一百九年再丙辰(英祖12年 1736) 八月 日豎于墓坐.
	嘉善金極齡表(無前)	9. 金極齡[墓表]	金極齡 字南老	鄭來僑撰, 鄭宗周書. 崇禎紀元後三戊辰(英祖24年 1748) 月 日.
	同樞皮益煥表	10. 皮益煥墓 贈貞夫人金海金氏祔左	皮益煥 字明瑞	鄭來僑撰, 安命說書. 崇禎紀元後三壬申(英祖28年 1752)五月日立.
	嘉善玄德潤表	11. 玄德潤墓 貞夫人昌原黃氏祔左	玄德潤 字道以 號錦谷	鄭來僑撰, 孤[玄]泰翼書. 崇禎紀元後再戊子(英祖14年 1738) 三月日豎.
	進士鄭敏僑表	12. 鄭敏僑[墓表] 孺人原州邊氏祔左	鄭敏僑 字系通 號寒泉子	洪象漢撰. 洪樂性書. 崇禎後三己巳(英祖25年 1749) 四月 日 立.
	折衝李世億表	13. 李世億墓碣銘(幷序) 淑人漢山石氏祔右	李世億 字有年	申維翰記. 前面摸東坡字陰記集金生書. 崇禎紀元後三丁丑(英祖33年 1757) 秋八月重.
	贈判決金英萬表	14. 金英萬墓表 淑夫人晉州姜氏祔左	金英萬 字汝長	金坦行撰, 金履運書. 崇禎紀元後百有三十一年戊寅(英祖34年 1756) 二月 日立.
『金石集帖』175(羊)	太醫金知事有鉉表	金公有鉉墓 贈貞夫人濟州高氏祔墓後 貞夫人完山李氏祔左	金有鉉	南有容撰. 金致仁書. 崇禎紀元後三 壬申(英祖28年 1752) 月 日[立]
『金石集帖』175(羊)	詩人洪滄浪世泰表(1748年)	詩人滄浪洪公世泰之墓	洪世泰	趙顯命撰, 曺命敎書. 崇禎紀元後三戊辰(英祖24年 1748) 月日立.

고려・조선에서는 상인 묘주의 비지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32] 19세기 여항문인 임광택(林光澤)은 문집 『쌍백당유고(雙柏堂遺稿)』(필사본)에 「환시비갈설(宦侍碑碣說)」을 남겨, 적어도 조선 19세기에는 환시(宦侍) 묘주를 위한 비갈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환시의 비갈은 비음에 본생가의 부모 세계를 기록하지 않고 명령(螟蛉) 즉 시양가(侍養家)의 내력을 기록했다고 한다. 『금석집첩』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32) 중국의 경우, 명나라 말에는 商人의 墓道文字가 많이 나타났다. 王世貞의 『弇州四部稿』 수록 85편 碑誌文 가운데 商人이나 商婦 묘주의 비문은 13篇, 『弇州續稿』 수록 241편 비지문 가운데 상인 및 상부의 것은 35편이나 된다.

6. 맺는말

교토제국대학 동창회지인『이문회지(以文會誌)』제4호(1911년 신해, 11월)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전년도 1910년(메이지 42년 11월)에 교토대학 동양사학교실에서 구입한『금석집첩』은 250책이라고 했다. 박철상 씨는『조선시대금석학연구』[33]에서 해당 탁본첩이 정편 2백책, 속편 19책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후지모토 교수는『일본현존조선본연구(史部)』[34]에서, 교토대학교 소장본이 본래 219책인데 1책이 탈락되어 있어 모두 218권이며, 제1책(天)의 작성 시기 미상의 삽지에 '二百二十七卷(內三冊落)'이라고 되어 있어, 어느 시점인가 그 당시에는 224책이 존재했다고 추정했다.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조사팀에 합류하여 필자가 조사한 결과, 교토대학에는 현재 218권이 한곳에 보존되어 있다(제155책 囧자 책은 실물 미확인). 단, 교토대학에서 어느 때인가 연필로 외표지에 번호를 매긴 것에 의하면 그 시점에서는 230책이 완질이었던 듯하다. 단, 천자문의 순으로 볼 때는 天자 책부터 惡자 책까지 226책 가운데 '薑'자 책, '育'자 책, '邇'자 책, '惟'자 책, '得'자 책, '忘'자 책, '維'자 책, '空'자 책, '谷'자 책, '習'자 책이 빠져 있다. '禍因惡積'의 '積'자 책도 궐실(闕失)일 가능성이 있지만,『고려대『금석집』의 목록이 '惡'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積'자 책은 본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得'자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재로의 편찬에서 시작한『금석집첩』은 당대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세기 초까지 편찬이 계속되었다. 또한 天자 책부터 惡자 책까지『금석록』저록의 226책이 1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한 질을 예비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토대학『금석집첩』정편과 속편 이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영본(零本)들을 모두 수합한다면 전모가 드러나게 될 듯하다. 교토대학 이외의 소장본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 1책 이외의 책들은 이른바 복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3) 박철상,「조선시대금석학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34) 藤本幸夫, 앞의 책.

▮ 참고문헌

『고려사』, 『동문선』.

金鍾厚, 『本庵集』.
王世貞, 『弇州四部稿』.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李睟光, 『芝峯集』.
張福樞, 『四未軒集』.
曺植, 『南冥先生集』.
許筠, 『惺所覆瓿稿』.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193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Ⅲ, 國史編纂委員會, 1995.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1冊, 東洋文庫, 1944.
全羅南道 編, 『全南金石文』, 湖南文化社, 1990.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下, 日韓印刷所, 1919.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硏究』 第21號, 韓國實學硏究會, 2011, 237-302면.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硏究(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方東仁, 『嶺東地方金石文資料集』 1, 關東大 嶺東文化硏究所, 1984.
박철상, 「朝鮮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位相」, 『大東漢文學』 第27集, 大東漢文學會, 2007, 45-77면.
_____, 「조선시대금석학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孫淑景, 「19세기 후반 關王 숭배의 확산과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싼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 『古文書硏究』 第23號, 韓國古文書學會, 2003, 211-241면.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a.
_____,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b.
韓國歷史硏究會 古代史分科,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韓宗洙, 「朝鮮後期 肅宗代 關王廟 致祭의 性格」, 『歷史民俗學』 第21號, 韓國歷史民俗學會, 2005, 73-106면.

劉琴麗, 「德政碑與唐代州縣官員的政績書寫」, 『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 第42卷 4期, 四川師範大學, 2015, 155-162面.

【Abstract】

A Study on the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in the Kyoto University

Sim, Kyung-Ho*

In Kyoto University Library, 219 volumes of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Jeongpyeon (the main part) and Sokjip (the sequel) are owned as a general-valuable collection. These books are collectively titled 'Geumseokjipcheop.' It is an assortment of rubbings of stone monuments, which was compiled by a politician in the late Joseon king Yeongjo: Cheongsa (淸沙) Kim Jaeroe (金在魯, 1682-1759) and his successors. There is a ink note 'Heumheumheon (欽欽軒)' on the spine of some volumes. The note is considered to be a Kim Jaeroe's manor title (軒號). The entire books are categorized by items, and its volume sequence follows a letter sequence of The Thousand Characters Classic. Three volumes of 219 volumes are duplicated copies. According to a penciled number on the cover, written by Kyoto University at a certain point, it seems that the book collection was 230 volumes in total.

Hujimoto Yukio made a detailed list of Guemseokjipcheop and Sokjipcheop in Kyoto University. However, the list have some points that are not correspond with a reference number of Kyoto University library. Guemseokjipcheop separated a category 'tombstones (墓碑)' from 'general articles except tombstones (凡非墓碑諸紀事).' Also, it arranged the tombstones category by an official title of the deceased, separately arranged epitaphs of Kim Jaeroe's family. It also set up items such as Eumgwan (蔭官: officials who are specially recruited by a lineage), Buin (婦人: madams), Honamin (湖南人: people from southwestern region), Yeongnamin (嶺南人: people from southeastern region), Gwanseobukgwanin (關西北關人: people from northen region), Yeohanin (閭巷人: middleclass), etc.

Meanwhile, Korea University Yukdangmungo (六堂文庫) owns manuscrips Geumseokrok (金石錄), an organized and supplemented list of stone rubbings in Geumseokjipcheop, edited by a successor of Kim Jaeroe. This complete list is composed of 34 categories from Cheonjo (天朝: The emperor's nation) to Seoksa (釋寺: Buddhist monks and temples).

* Professor, Dep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ersity.

2,405 pieces of rubbings are contained in the main part 206 volumes and the sequel part 20 volumes. However, it actually has 2,265 pieces of rubbings because of overlaps in the list.

About Geumseokjipcheop, Katsuragi Sueharu and Maema Kyousaku mentioned that Gyujanggak owns Geumseokcheop 39 volumes, however currently, Gyujanggak only owns one volume with a '得' letter sequence. Also, Geumseokcheop with the same shape had been known to be owned by Korea University Yukdangmungo (28 volumes) and a private collector (5 volumes). It is confirmed that a '邇' sequence volume, a '過' volume, a '忘' volume, a '維' volume, and part of '習' volume are owned by Yukdangmungo. These volumes are not owned by Kyoto University. Also there are overlaps between Yukdangmungo and Kyoto University, for example the '禍' volume. Considering three duplicated volumes in Kyoto Universiry and 28 separate volumes in Korea University, it can be assumed that some volumes of Geumseokjipcheop was made to two copies at the point of its publication by Kim Jaeroe and his colleagues.

Keywords: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Kim Jaeroe(金在魯), *Geumseokrok* (金石錄), Yukdangmungo(六堂文庫), assortment of rubbings(拓本), tombstones (墓碑), general articles except tombstones (凡非墓碑諸紀事).

접수일: 2019.04.0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